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18면	오늘 양양서 식목일 기념행사	1
江原日報	18면	오색케이블카 성공 기원	1
江原日報	23면	전국동계체전 종합3위 겨울스포츠 저력 확인	2
江原日報	27면	[동정] 권혁열 도의장(강릉)	2
江原日報	17면	횡성소방서 119구조대 신축 청사 준공식 개최	3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박대현(화천) 도의원	4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	4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이현종(위 왼쪽) 철원군수·박기준(위 오른쪽) 군의...	4
강원도민일보	01면	김진태 지사, 지하 1150m로 내려간 까닭은?	5
강원도민일보	04면	김 지사 "장성광업소 폐광 대비 대체산업 적극 발굴"	5
강원도민일보	15면	인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6
강원도민일보	16면	영월 국도 38호선 '스마트 복합쉼터' 착공	6
강원도민일보	15면	홍천군 산림자원 친환경 활용안 모색	7
강원도민일보	17면	철원군 산사태 위험지 선제대응 나선다	7
강원도민일보	18면	고성군산림조합 신청사 개청 랜드마크 기대	8
강원도민일보	08면	'가성비로 승부' 강원식당 SNS서 입소문	8
江原日報	19면	‘일하는 시민 존중받는 도시 만들기’ 상호 협력	9
江原日報	16면	'별미·재미·흥미' 춘천 사계절 관광도시 도약	9
江原日報	22면	철원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
江原日報	07면	고령화에 증여도 늦어진다... 70세 이상 최다	10
江原日報	20면	삼척맹방유채꽃축제 오늘 막올라	11
江原日報	21면	‘친환경 급식’ 농가 소득·학생 건강 일석이조	11
강원도민일보	09면	봄봄봄~ 흠날리는 벚꽃잎에 경제회복 두근두근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원주시 항공교통 거점 도시로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릉시, 항구 퇴적문제 주도적 해결을	14
江原日報	25면	[사설] 강원랜드 경쟁력, 복합리조트 조성에서 찾아야	15
江原日報	25면	[사설] 천혜 비경 강원 동해안, 미래 유산으로 남기자면	16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18

오늘 양양서 식목일 기념행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가 29일 오전 11시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양양군의회, 동부지방산림청, 강원임업인총연합회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해 남대천 파크골프장에 영산홍을 직접 심는 시간을 갖는다.

최훈

江原日報

2024 03 29 ()

18

오색케이블카 성공 기원

양양군

오늘 양양송이공원
250여명 참석 예정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가 29일 오전 11시 양양송이공원에서 펼쳐진다.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기념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며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해 양양군 및 양양군의회, 동부지방산림청, 강원임업인총연합회,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등에서 총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식목일을 기념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0.5ha 규모의 남대천 파크골프장 부지에 참석자들이 영산홍 나무를 직접 심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식목일 기념행사가 양양에서 열려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며 "행사를 통해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강원지역 산림을 가꾸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양=김보경기자 bkk@

2024 03 29 ()

江原日報

23

전국동계체전 종합3위 겨울스포츠 저력 확인

강원특별자치도선수단 해단식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수단 해단식이 28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렸다.

도체육회는 양희구 도체육회장,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김기현 도교육청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상하 삼척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군체육회장과 선수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해단식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도 선수단은 8개 종목에 총 452명(선수 286명, 임원 166명)이 참가해 금메달 41개, 은메달 37개, 동메달 38개 등 총 116개의 메달과 총득점 841점을 획득, 종합 3위에 올랐다. 4관왕에 오른 여자 알파인 스키의 간판 김소희(하이원)는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이날 12년 연속 스키 종합 1위를 달성한 도스키협회와 컬링 종합 2위에 오른 도컬링경기연맹, 바이애슬론 종합 3위에 오른 도바이애슬론연맹, 도산악연맹이 우수회원종목단체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들 단체와 도 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에는 특별훈련비도 전달됐다. 이재동 도스



동계스포츠의 메가!
회 5년간(2024년~2028년) 강원특별자치도

사진=도체육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양희구)는 28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해단식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452명 참가 메달 116개 획득... 알파인스키 4관왕 김소희 최우수선수
12년 연속 종합 1위 도스키협회 등 우수단체·지도자·선수에 공로패

키협회 부회장 등 우수회원종목단체 임원 4명과 한재혁 춘천기계공고 교장 등 학교장 8명, 이재호 유봉여고 지도자 등 지도자 6명도 공로패를 받았다.

크로스컨트리 5관왕을 달성한 이서원(진부중)과 박재연(대관령초)을 비롯해 김소희, 한경희 황지고 바이애슬론 지도자, 김영희 진부중 크로스컨트리 지도자에게도 특별훈련비가 수여됐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와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이스클라이밍

스피드 경기에 참가해 모두 1위를 차지한 차유진(도산악연맹 여자부)에게는 특별 공로패가 주어졌다.

양희구 회장은 “국내 최대의 겨울스포츠 축제인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앞으로 5년간 강원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에서 강원 동계종목의 저력을 확인하고 강원체육의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 선수들의 기량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

江原日報

2024 03 29 ()

27

◇권혁열도의장(강릉)은 29



일 오후 1시 강릉 뉴그랜드볼링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볼링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축하.

江原日報

2024 03 29 ()

17

횡성소방서 119구조대 신축 청사 준공식 개최

【횡성】지역 119구조대 청사가 신축돼 긴급출동 서비스가 강화됐다. 횡성소방서(서장:박순걸)는 28일 '더 안전한 횡성 만들기'를 위해 신축한 119구조대 청사 준공식을 열었다.

청사는 횡성소방서 건물 뒤편 1만1,884㎡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72.5㎡ 규모로 건립됐다. 준공식에는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최규만 도의원, 표한상 군의회 부의장, 정운현 군의원, 이동권 횡성경찰서장, 최종웅 NH농협 횡성군지부장, 임태환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지사장, 신형철 횡성군새마을회장, 김찬호 한국소방안전원 강원지부장, 육군 제8375부대 2대대 임희봉 대대장, 정대용·김영숙 횡성군의용소방대 남·여연합대장과 대원 등 14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17



박대현(화천) 도의원은 29일 오후 3시 도사회서

비스원에서 열리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조사 착수 보고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15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은 29

일 오전 11시 양양 송이조각공원에서 열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성공기원 및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17



서 열리는 제3회 의용소방대의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현종(위원쪽)철원군수·박기준(위오른쪽) 군의

장·엄기호(철원) 도의원은 29일 오전 11시 철원종합운동장에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01

김진태 지사, 지하 1150m로 내려간 까닭은?

김진태 도지사가 28일 태백장성광업소를 찾아 지하 1150m로 입갱해 석탄을 채다. 아시아 최대규모 탄광이었던 장성광업소는 올해 6월 문을 닫는다. 도에 따르면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900여명의 실업과 경제적 피해는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지사가 첫 입갱에 나선 것은 태백·삼척 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조기지정 필요성을 정부에 우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도내 폐광지역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규정하

태백 장성광업소 입갱 직접 채탄
고용위기지역 조기지정 호소 표현



김진태 지사와 이상호 태백시장은 28일 태백 장성광업소에 입갱, 채탄작업을 했다.

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과 피보험자수감소등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지정 계획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고용노동부에 도내 폐광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조기지정을 위한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은 역사적으로 절대 잊혀서는 안 될 것”이라며 폐광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대체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김덕형

▶ 관련 기사 4면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04

김 지사 “장성광업소 폐광 대비 대체산업 적극 발굴”

장성생산부 입갱 일일 광부 체험
현안대책위·진폐재단단체 면담
고용 문제·시설물 활용 등 논의

국내 최대탄광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오는 6월말 폐광하는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가 28일 현장을 방문해 “대체산업 발굴 및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이상호 태백시장,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 김홍섭 강원고용노동지청장, 오대현 장성광업소장 등과 함께 장성생산부(경도)에 입갱했다.

이들은 경도 입구에서 레일바이크 형태의 인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걷고, 수직 엘리베이터(케이지)를 탔다가 인차를 다시 잡아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채굴 현장에 도착했다.

이날 태백의 낮 최고기온은 9도지만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이상호 태백시장,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 김홍섭 강원고용노동지청장, 오대현 장성광업소장은 28일 3개월 뒤 폐광하는 태백 장성광업소에 입갱했다.

겨내는 평균 기온 33도, 습도 85%, 체감 온도 40도를 훌쩍 넘었다. 김 지사는 “긴장되고 걱정이 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끈 산업역군 광부들이 어떻게 살아

오셨는지 직접 체험해보려고 입갱을 하게 됐다”며 “장성광업소가 폐광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 태백이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여러가

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입갱 체험을 마친 뒤 장성광업소 회의실에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5개 진폐재단단체와 면담을 갖고 폐광대

비 대체산업 유치와 시설 활용 등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막장 속 고단했던 산업전사의 삶을 몸소 체험했다”고 일일광부 체험의 소회를 밝히며 “진폐환자의료비 지원대상범위를 만성폐질환자까지 확대하고, 문화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기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고용 문제와 폐광되는 광업소의 시설물 활용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폐기물로 취급되는 폐광지역 경석을 산업자재로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만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우열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15

인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군, 필리핀 85명 입국설명회
올해 624명 199개 농가 배치
송출 유예 속 군 행정력 성과

인제지역 농촌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첫 입국했다. 인제군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 바탄가스주와 산 루이스 시의 근로자 85명이 지난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입국했다.

이번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

작으로 오는 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624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비자 체류기간인 5개월 또는 비자 연장 신청시 최대 8개월간 인제지역 199개 농가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은 지난해 대비해 130명이 증가한 수치로 필리핀 근로자 437명과 결혼이민자가족·친척 초청방식의 베트남 등 근로자 187명이다.

군은 계절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근무여건, 주거환경, 임금지급,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는 동시에 필리핀 출신 결혼 이민자통역 도우미를 채용해 농가와 근로자간의 언어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 필리핀 이주노동자 부가자국 계절근로자의 대한민국 송출을 잠정 유예한 상황에서 입국이 성사돼 의미가 크며, 군과 필리핀의 지자체가 브로커 개입없이 직접 업무를 추진,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마친 점이 한몫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22년 12월 필리핀의 바탄가스주, 산루이스시와 각각 '외

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지난 2023년 총 348명의 계절근로자를 파견받은 가운데 재고용입국 추천율 70%와 전체 이탈률 1.4%를 기록했다.

김미연 농업인력TF담당은 "이번 계절근로자 송출 유예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대상 국가 물색보다는 상대지자체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함께 원인을 해결한 경험이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안정적인 농촌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16

영월 국도 38호선 '스마트 복합쉼터' 착공

국토부 공모 선정 35억원 투입
관광휴게시설 구비 연말 완공
관광객 증가 경제 활성화 기대



영월읍 방절리 국도 38호선 상행선에 들어서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감도

영월군이 최근 영월읍 방절리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인근 국도 38호선 원주 방향 상행선에 단종의 향기를 품은 스마트 복합쉼터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말까지 7454.3㎡ 부지에 건축면적 344.09㎡의 3층 규모로 건립되는 쉼터는 방문자안내센터 등 정원

등록 필수시설과 30면의 주차장·특산물판매소·식당·카페·편의점·화장실 등의 관광휴게시설을 갖추게 된다. 특히 옥상에는 청령포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돼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쉼터가 아닌, 힐링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정선국도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거쳐 지난해 12월 관련 인·허가협

의를 모두 완료했다.

정역교 건설과장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을 통해 국도 38호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도변 졸음쉼터에 체험과 관광·지역 정보 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복합휴게공간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방기준 kja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15

홍천군 산림자원 친환경 활용안 모색

유관기관 산림발전 지역협의회

산불 대응체계·소득 증대 논의

제2회 홍천군 산림발전 지역협의회가 28일 홍천산림조합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지 취재결과, 산림발전 지역협의회는 신영재 군수가 홍천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지난해부터 지역내 민간, 공공산림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해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신영재 군수, 박유봉 홍천군 산림조합장, 최형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 산림과학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재해 대응체계 구축, 산주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공유 및 협조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형 산불 확산방지를 위한 초기진화 협력 등을 중점에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산림과학연구원 관계자는 도유림 산림 경영기반 구축 및 관리에 대해 건의했다. 박유봉 홍천산림조합장은 "산겨릅나무 대량생산을 통한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형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공유림 교환에 따른 산림자원화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했다.

군은 이날 회의를 토대로 이후 정책 등에 반영해 산림자원 보호 및 활용을 극대화 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관계 기관과 지속 협력해 홍천의 훌륭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승현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17

철원군 산사태 위험지 선제대응 나선다

50억원 투입 사방사업 착수

집중호우 인명·주택피해 반복

"산림보호·주민 안전보장 최선"



철원군은 산사태 위험지역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 산림토목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군은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철원군은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방댐 등 친환경 산림토목사업을 착수한다.

국지적 계류라성 호우가 빈발해

인명피해와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집중호우 시 산간계류의 토석류 유실로 산림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산림토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50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6곳과 계류보전사업 3곳, 산림유역관리사업 2곳 등에 대해 산림재해예방

을 통해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에 친환경적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우기 이전 완공으로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인 녹색성장과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삶과 산림보호를 위해 사방댐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림 지역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18

고성군산림조합 신청사 개청 랜드마크 기대

간성읍 지상 5층 규모

조합원 편의 최우선 고려

고성군산림조합이 지난 27일 신청사를 개청하고 군민과 더 가까운 조합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조합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성된 이번 신청사 건물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조합 금융과가 신청사로 전진 배치돼 임업인들은 물론 군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조합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주민친화적인 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또 신축 청사의 2층부터 5층까지 병원, 약국 등 다양한 임대사업을 펼쳐 재정 자립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은 앞다투어 탄소중립을

위한 자발적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 산림조합 역시 78%가 산림으로 구성된 고성군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석 고성군산림조합장은 “조합의 주인인 산주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양묘특화단지 조성, 임산물 직매장 설치 등 다양한 성장사업들을 추진하겠다”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조합을 성장시키고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시행해 조합원과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산림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62년 설립돼 올해로 63주년을 맞이한 고성군산림조합은 최북단에 위치한 조합으로 2024년 3월 현재 총자산은 930억원이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35억여원이 투입돼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40번지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산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08

‘가성비로 승부’ 강원식당 SNS서 입소문

1000원 탕후루·5000원 돈가스
온라인 게시물 공유 방문 줄이어
도, 착한가격업소 혜택 확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요즘,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파격적인 가격으로 승부하는 강원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반한 소비자들이 SNS, 온라인 등을 통해 소개하며 입소문을 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강릉 중앙시장 인근에 위치한 탕후루 가게는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 명동에서는 비싸게는 5000~6000원에 달하는 ‘비싼 디저트’인 탕후루가 강릉



강릉 중앙시장 인근 한 탕후루 가게. 대부분의 탕후루를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에서는 1개에 1000원, 행사 상품으로는 750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일 중도매인인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젊은 세대 사이 탕후루 유행과 저렴한 가격이 합쳐져 SNS와 각종 포털사이트 등에는 방문 인증글이 쏟아지고 있다.

춘천의 강원대 인근 대학가 골목에서 5000원 한 장이면 돈가스를 먹을 수 있다. 식당을 찾은 중국인 유학생 류아(23)씨는 “한국은 중국보다 밥값이 비싼데, SNS를 보고 중국이랑 비슷한 가격을 발견해 자주 방문한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50대)씨는 “22년 동안 가게를 운영했고 처음 가격은 3000원으로 시작했다”며 “학생들이싼 가격에 많이 먹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 학교식당 가격처럼 비슷하게 맞추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젊은 세대 사이에서 SNS 등을 통해 저렴한 식당 공유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보면 가성비 식당 추천 게시글의 공유수가 800건을 넘었고 식당을 찾는 질문도 하루에 2~3건씩 올라오고 있다. 강원대 학생 김희진(21)씨는 “친구

나에타(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 앱)에서 저렴한 식당 정보를 얻고 실제로 자주 이용한다”며 앱에서 찾은 식당 리스트를 보물이라 소개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보면 지난 2월 도내 짜장면 가격은 6722원으로 전년동월(6389원)보다 5.2%(333원) 올랐고, 비빔밥 가격도 6.7% 상승한 9722원으로 조사됐다. 점심 메뉴로 자주 먹는 김치찌개(8167원)와 칼국수(8667원) 가격도 8000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26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에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현재 594곳인 착한가격업소를 6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호 jeongho@kado.net

2024 03 29 ()

江原日報

19

‘일하는 시민 존중받는 도시 만들기’ 상호 협력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속초】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일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 만들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2024년도 상반기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노동존중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

선 지원, 미래환경 대응체계 구축 사업, 안전일터 예방 거버넌스 활동 등 4대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일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각 분야에서 노사관계의 안정과 지역상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이행점검단 및 5

개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병선 시장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모두에게 안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노사민정 상호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올해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2024 03 29 ()

江原日報

16

‘별미·재미·흥미’ 춘천 사계절 관광도시 도약

【춘천】춘천시가 먹거리에 치 중된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 이미 물꼬를 튼 이탈리아 교류와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을 비롯해 미식관광, 산악관광, 호수관광 등을 핵심 사업 분야로 체류형 관광객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춘천시는 최근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향후 5년간의 관광 육성 방안을 도출했다.

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5년 간 육성 방안 논의
WT 본부 건립·이탈리아 교류 등 글로벌 관광 구축

우선 이번 연구를 통해 춘천 관광 여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관광객 평균 체류시간은 273분, 숙박 비율은 13%로 분석돼 체류형 관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은 캠핑장, 민박을 포함해 691곳이 있지만 인센티브 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부족한 규모이고 4-5성급

호텔이 없어 고급 관광 인프라 부족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문화관광도시 춘천을 비전으로 국제 수준의 관광 인프라 확충, 융복합형 관광 생태계 구축, 사계절 스마트 관광 환경 구축, 글로벌 문화콘텐츠 확충을 전략으로 수립했다.

첫 번째 핵심 사업은 ‘돌체 이탈리아’로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탈리아 파르마시와 연계한 춘전형 융복합 관광콘텐츠 발굴을 담고 있다. 춘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파르마시의 미식 콘텐츠 기술을 결합하고 허브 공간을 구축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어 WT 관광 명소화 사업은 국제대회 개최와 해외 전지훈련 유치 및 치유 관광 연계 등이 구상됐다. 다음으로 미식 관광 분야는 국제 협력 시스템 구축, 지역 한정 제품 생산 등의 필요성이 나왔고 산악 관광

분야는 트리탑로드 및 트리하우스 조성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호수관광 분야는 북한강 둘레길과 소양호 광역 뱃길 등이 도출됐다.

시 관계자는 “최종 보고회에서 수립된 추가 의견을 토대로 종합 계획을 최종적으로 다듬어 관광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동한 춘천시장은 관광 숙박 인프라 벤치마킹을 위해 29일 인천지역 복합리조트를 방문한다. 정운호기자

2024 03 29 ()

江原日報

22

철원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출산 극복 의료사업 시행
임산부 영양제 등 제공

【철원】철원군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 횟수는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제한

됐지만 인공수정 5회를 포함, 총 25회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철원군보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임신부 등 특관리사업을 통해 등록 임신부에게는 임신 축하 선물과 엽산, 철분제 등을 제공하고 임신 초기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 고위험 임신부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해 고위험 임신 선별검사 쿠폰 제공 및 의료기기 등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고위험 임신부로 판정 시 검사 및 의료비,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김대호기자 mantough@

2024 03 29 ()

江原日報

07

고령화에 증여도 늦어진다... 70세 이상 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자녀에게 집합건물을 증여하는 부모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자녀의 연령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자치도 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 증여 신청인은 총 1,343명이었다. 이 중 '70세 이상'이 563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증여 신청인의 41.92%로, 전국 평균(36.67%)을 크게 상회했다.

작년 도내 집합건물 증여 신청인 1,343명·70세 이상 '41.92%' 수증인 3,017명 연령대도 상향 50대 30.49% 3년째 비중 확대

67%)을 크게 상회했다.

도내 '70세 이상' 증여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7.72%에서 2021년 29.12%, 2022년 34.53% 등 3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전체 증여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5년 27.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50대는 2018년 15.05%로 급락, '70대 이상(23.07%)'은 물론 '60대(18.03%)'에게도 추월당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가속화로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노령층,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가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유자산을 운용하는 노령층이 증가하면

서 이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도 자연스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의 나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증여받는 자녀들의 연령대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집합건물 전체 수증인 3,017명 중 50대가 920명으로 30.49%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2021년 (23.57%)부터 3년 연속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어 60대가 827명으로 27.41%의 비율을 보였다. 2016

년부터 7년간 상승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치캡장은 "저출생 및 고령화 추세로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 또한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인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2024 03 29 ()

江原日報

20

삼척맹방유채꽃축제 오늘 막올라

근덕면 맹방들판서 17일간
포토존·각종 공연 등 풍성

【삼척】삼척시 대표 봄꽃 축제인 제20회 삼척맹방유채꽃축제가 ‘유쾌한 봄! 너랑너랑 노랑 유채꽃과 함께~’를 테마로 29일 근덕면 맹방들판에서 막을 올린다.

삼척맹방유채꽃축제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올해 축제는 4월 14일까지 17일간 열린다. 농특산물판매장, 향토먹거리장터, 반려동물입양캠페인 등의 상설 부스를 비롯해 MBC 라디오 공개방송, 유채꽃따라 걷기대회, 페이스페인팅 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맹방들판 6.5ha에 조성된 유채꽃밭에는 포토존과 산책코스가 들어섰고, 각종 공연과 매직풍선 만들기, 비눗방울 체험,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체험, 딸기초코송이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도 준비됐다.

시와 유채꽃축제추진위는 매년 30만여명의 시민·관광객이 찾는 점을 감안해 지난 18일 관계기관이 모인 가운데 안전관리계획을 논의, 곳곳에 안전요원 배치를 늘리고 유관부서 및 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동숙 삼척맹방유채꽃축제위원장은 “다채롭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이벤트로 축제가 준비됐다”며 “내실 있는 축제

운영으로 시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만진기자

江原日報

2024 03 29 ()

21

‘친환경 급식’ 농가 소득·학생 건강 일석이조

정선군 14억 투입 ... 유·초·중·고 47곳 2,622명 지원

【정선】전국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정선군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농민 소득 증대와 학생들의 건강한 농산물 섭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다.

군은 지난달 2024년 학교 급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사업비와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비 심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14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47개소, 2,622명을 대상으로 급식비 10억6,000만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 신선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등에 4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쌀과 시금치, 감자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 14종과 들기름, 고춧가루 등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 10종 등 총 24종의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종류와 단가를 결정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의 안전한 우수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과 신선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배송 차량 구입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창민 군 유통축산과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지역 농가가 모두 만족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 09

봄봄봄~ 훔날리는 벚꽃앞에 경제회복 두근두근

'벚꽃 특수' 강원 경기반등시킬까

찾아들지 모르는 고물가에 각종 업계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봄 축제들이 개장을 앞두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지역도 봄에 맞춰 열리는 각종 행사로 경기 반등을 도약한다.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벚꽃 축제에 강원 벚꽃명소들이 도내 경기 상승을 견인할지 주목된다.

강원 소비자심리지수 전국평균 상회

봄 나들이 기간 경기회복 기대감

도내 벚꽃축제·명소 주변상권 활력

작년 강릉 경포대 카페 매출 95% ↑

춘천 소양강댐·공지천 벚꽃길 조성

속초 영랑호 벚꽃축제 내일 개막

지역별 축제 경쟁력 강화 손님맞이

■불황 속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희망'

최근 먹거리 등 각종 물가 오름에 가계와 소상공인들의 물가 부담이 급증한 데 더해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장점령으로 중소기업에 가격 경쟁력 약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이어 직구제품의 재판매 피해(40.0%)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응답했다. 또 매출감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중국산 직구제품 유입이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보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

(29.5%)보다 더 높았다. 업계는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으로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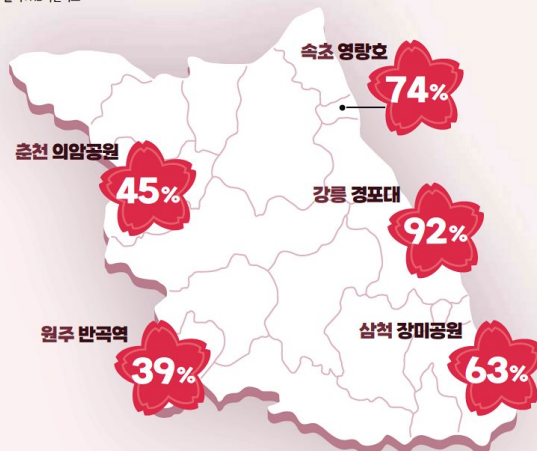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계의 경기 불황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 강원본부 발표된 '3월 강원지역 소비자자동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4.8로 전월 대비 1.3p 높아졌다.

도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99.2)부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월 중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104.8)는 전국 소비자심리지수(100.7)보다 4.1p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 생활형편 CSI(93), 소비지출전망 CSI(113)는 전월 보다 각각 2p, 3p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 CSI(96)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가계수입전망 CSI(100)는 전월 대비 1p 하락했다. 또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74)와 향후경기전망 CSI(87)는 각각 전월 대비 2p 상승했으며

■2023년 강원권 벚꽃 명소 외부 방문객 매출액 비중

출처: KB국민카드



분석 결과 비교 기간 대비 벚꽃 나들이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증가한 강원권 벚꽃 명소는 강릉 경포대와 춘천 의암공원이 앞섰으며 각각 23% 매출액이 증가했다.

또 외부 방문객의 매출 비중이 높은 지난해 도내 벚꽃 명소로는 강릉 경포대(92%)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속초 영랑호(74%), 삼척 장미공원(63%), 춘천 의암공원(45%), 원주 반곡역(39%), 강릉 흥재정수장(39%) 등 순으로 매출액 비중이 높았다. 주요 벚꽃 명소의 음식점, 카페 편의점 매출을 비교한 결과 강원권에서는 벚꽃 개화 기간 강릉 경포대에 인파가 많이 몰렸다. 올해도 벚꽃 시즌 동안 외부 방문객으로 인한 도내 경기 호황이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벚꽃 개화 기간 강릉 경포대의 커피전문점 매출액은 95%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벚꽃 명소 주변 상권의 경기 반등도 예상된다.

춘천에서는 내달 초를 벚꽃 절정기로 보고 소양강댐을 비롯해 공지천, 복산면 부귀리 등에 벚꽃길이 조성될 예정이다. SNS 등을 통해 현지인 벚꽃 명소로 더욱 유명해지면서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대표 벚꽃 축제인 강릉의 '2024 경포대 벚꽃축제'는 내달 5일부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포습지 광장을 주행사장으로 각종 체험 행사와 플라마켓,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될 계획이며 또 연가한 일정에 맞춰 교1동에서는 '술을 불러썸' 야간 벚꽃 감상길도 조성된다.

속초 영랑호에서도 '2024 영랑호 벚꽃축제'가 오는 30일~31일, 내달 6일~7일 연장을 운영한다. 이번달 기존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포토존과 야간조명등, 친환경 체험 및 버스킹 등을 벚꽃 만개에 예상되는 내달 6일~7일에 맞춰 한 번 더 선보인다.

김성림 도 관광정책과장은 "각 시군과 함께 축제장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마련해 전국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지역 축제를 명품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도민들의 몫인 만큼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사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황선우·이정호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 19

원주시 항공교통 거점 도시로

-개항 후 첫 20만명 돌파... 편의시설 확충 과제

원주공항 탑승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공항으로 자리매김한 동시에, 향후 성장가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용객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원주공항을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뿐 아니라 춘천 등 영서 지역 주민들도 김포와 인천을 가지 않고, 가까운 원주공항을 많이 찾아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과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원주공항 탑승자 수는 20만 5279명으로, 1997년 개항 후 26년만에 20만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3만 7729명이었던 이용객은 2021년 13만 2339명, 2022년 19만 3239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탑승률도 2023년 78.8%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원주에서 제주까지 가는 비행편을 오전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행 항공편은 오는 31일부터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5시 2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종전보다 25분가량 늦어지긴 했지만, 오전·오후 시간대를 유지하게 됐

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된 원주공항 진에어의 하계 항공기 운항 일정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적용됩니다. 제주발 원주행 항공편도 종전 오전 8시 50분과 오후 2시 30분에서 각 오전 9시 5분, 오후 3시 2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원주시의 인구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 1992년 17만 1356명 수준이던 인구는 2008년 30만 3975명, 2023년엔 36만 1503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원주시로 모여들었고, 이에 따른 임직원들의 유입이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공항은 더 활기를 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역 거점 공항으로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공항 접근성 확보와 편의 시설 확충을 요구해왔습니다. 군부대 활주로를 이용하다 보니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1.7km를 더 이동해야 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항공기 연착 시 발이 묶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은 물론, 충청 북부권과 수도권 주민들로 이용객을 확대하려면 조속히 풀어야 할 사안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9 ()

/ 19

강릉시, 항구 퇴적문제 주도적 해결을

-모래 퍼내기 한계 화력발전소 조사단 근본대책 필요

강릉 남부 안인항과 남항진항 어업인들이 잇달아 어선 진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모래가 퇴적된 원인 규명과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반대로 긴 길이와 너비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던 인접한 안인해안사구에서는 유례없이 급격히 모래가 쓸려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래가 없어야 할 곳인 항구에는 쌓이고, 기존에 모래가 풍부해 국가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해안에서는 모래가 급격히 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인항에서는 2023년 봄부터 모래가 본격 쌓이기 시작해 올 2월에는 사람이 건너다닐 정도로 쌓여 가자미철을 맞았는데도 선박 왕래가 안돼 조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업인들은 안인항이 축조된 이후 항구 안에 모래가 쌓여 출어를 포기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인항과 가까운 남항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선박이 지나다녔던 물길에 모래섬이 형성됐습니다. 남항진 어촌계 측에서는 “최근 모래 퇴적 현상이 발생한 안인항 일대와 비슷한 시기에 이곳에도 같은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안인항에서는 몇 차례 모래를 퍼내긴 했으나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 남항진의 경우는 모래 퇴적 범위가 넓어

긴급 준설조치 어려워 더 막막한 상황입니다. 한편 2400여년에 걸쳐 독특한 식생과 자연을 자랑하는 풍부한 안인 해안사구는 모래가 빠르게 깎여나가면서 폭넓은 백사장은 물론 해안도로까지 훼손될 정도입니다. 모래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와 육상 돌망태를 쌓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지만, 현상 유지는 커녕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번졌고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인항과 남항진에서 수십여년간 조업해 온 어업인들은 급격한 모래이동과 같은 해안지형 변화 원인으로 신설 화력발전소 영향을 유력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근 이 일대 해안 주요 변화가 다름 아닌 화력발전소 건설 및 관련 해상계류장 신설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화력발전소의 해상시설 우려는 착공 단계부터 제기됐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부실한 해상공사 관리, 밀어붙이기식 공사 추진, 강릉시 행정의 소극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응급조치 같은 현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전문가 그룹과 어업인이 합동 참여하는 조사단부터 시급히 꾸려 근본 대책에 나서야 때늦은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4 03 29 ()

/ 25

강원랜드 경쟁력, 복합리조트 조성에서 찾아야

폐광지역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였지만 안타깝게도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년)’이 제정된 지 30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폐특법’ 연장으로 특별법의 영구성을 갖기는 했지만 지역경제 여건은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근거,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98년 6월 설립돼 2003년 4월 메인 호텔, 카지노, 테마파크를 공식 개관하면서 리조트의 면모를 갖추고 운영이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카지노 매출은 급격히 줄었다. 이제 강원랜드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강원랜드가 지난 25일 ‘산립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산립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는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초 체결한 산립정과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출범하게 됐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려면 테마파크,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장이 카지노를 지

원하는 부대시설이라는 개념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시설로 정비되고 카지노는 게임콘텐츠의 관광시설로 인식돼야 한다. 카지노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세계 여러 각국에서 관광객을 위한 게임과 오락기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이 카지노를 자연관광자원을 대체하는 전략적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랜드도 국제 수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축제 이벤트, 세계적인 미이스(MICE) 행사를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 폐광지역이 지닌 탄광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폐광지역의 ‘콘텐츠’를 살리면서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연계·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정부는 내국인 카지노에서 폐광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도박중독을 우려해 모순된 카지노사업 운영 규제를 펴고 있다. 사회적 환경이 변했다.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카지노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국제 수준의 카지노리조트로 재탄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랜드가 그동안 설립 취지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해결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도출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4 03 29 ()

/ 25

천혜 비경 강원 동해안, 미래 유산으로 남기자면

동해안 경관을 보전하고 나아가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최근 동해안 개발은 무분별한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 등 파괴적인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동해안의 해안침식을 막기 위해 해변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아예 덮어버리는 사례까지 속출해 오히려 해안경관을 망가뜨리고 있을 정도다. 동해안의 보전과 개발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에 올해 창간 79주년을 맞은 강원일보가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강원

대 미래도서관에서 ‘천혜의 비경 동해안,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손용훈 서울대 환경대학

원 교수는 ‘경관의 공공성’을, 김현준 강원대 건축학과 교수는 ‘천혜의 비경 동해안 해안선 보전: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또 김풍기(강원대 교수) 강원문화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김태경 강릉원주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동해안 천혜 비경을 보호하면서 발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알프스 산맥을 품은 오스트리아에는 케이블카 노선이 대략 3,000개에 육박한다. 연간 6,600만명의 전 세계인이 이 나라 케이블카를 이용하면서 수십억 유로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

은 산악 지역 교통 편의와 관광 개발 등 경제성만 입증되면 케이블카 설치에 규제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케이블카 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다시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1987년 개최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제시된 ‘우리들 공동의 미래(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성장을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동해안은 발전적으로 개발하고 정체성·고유성을 담아 미래 유산으

강원일보·강원문화연구소 28일 학술세미나 각계 전문가 보호·개발 다양한 의견 제시 맞춤형 지속 발전 정책 만들어 나가야 할 때

로 남겨야 할 곳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보전과 관리가 중요하다. 물론 무조건 보전만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경관관리정책을 추진하며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동해안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좋은 자연, 생태, 산림과 같은 경관자산은 잘 관리되고 가치가 제고돼야 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어떻게 규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적 협정과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민·관·산·학 담론과 민주적 결정 과정 등을 통해 강원형 맞춤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